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금동반가사유상

김종길

왼쪽 무릎 위에 발목을 얹은 수평으로 접은 오른쪽 다리, 왼손은 그 발목을 감싸고 있다.

허벅지에 고인 팔꿈치 위에 피어난 연꽃인가, 볼에 닿을듯 말듯 살짝 꼬부린 오른쪽 세 손가락.

천 몇백 년 동안, 그 자태 그대로 흐트림 없이 무엇을 그리도 골똘히 생각하는가.

인간의 업고여, 생로병사여, 그러나 그것들로부터는 아득히 벗어난 오히려 옛되고 예쁜 젊은 그 얼굴!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김종길 시인은... 경북 안동 출생.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해가 많이 짧아졌다〉, 〈황금빛 가랑이오리네〉 등

원로·중진 학자 “폐간 안돼” 한 목소리

‘불교평론’ 살리기의 당위성

〈불교평론〉 폐간 결정이 전해진 지 일주일. 불교학계는 직접적 문제 제기 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뒤숭숭하다.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학자들도 있었다.

이번 사태의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불교평론〉은 착박한 한국불교학계에 논쟁이라는 싹을 틔운 논단이었다. 사실 〈불교평론〉은 전문적인 학술지도 아니고, 대중에게 친숙한 잡지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술과 저널리즘이라는 양면의 경계에 서 있는 종합 학술 잡지다.

하지만, 매호 기획특집은 기존 불교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시해 왔고, 논단을 통해서 학술회 사안에 대한 건설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주제들도 선풍적이었다. 다문화, 성적 소수자 등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대적 논의가 필요했던 아이러니들이었다.

또한, 다양한 불교 서적을 다이제스트한 서평과 해외불교 논단도 많은 관심을 불러온 코너들이었다.

적지 않은 주류 학계 학설들도 폐간되는 상황에서 〈불교평론〉정도의 역할을 하는 잡지는 자본과 수요가 넉넉한 기독교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불교평론〉은 단순한 불교 학술 잡지를 넘어 인접 학문, 종교 연구자들에게는 ‘불교를 바라보는 창’으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영향력을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불교평론〉의 폐간 결정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평론〉은 만해사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文·社·佛 영역 아우르는

유일 종합 학술 계간지

다양한 담론 성숙 계기

폐간 결정은 ‘어불성설’

만들어진 매체”라며 “이미 공공성을 가진 매체를 일방적으로 폐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불교평론〉편집위원(동국대 교수, 불교학연구회장)은 “〈불교평론〉은 불교학을 대중들도 접하게 할 수 있게 열어젖혔다. 또한 인문, 사회, 철학 등 인접학문과 조우하게 한 창구”라고 평가하며, “〈불교평론〉의 폐간은 불교계의 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는 윤창화 민족사 대



목정배 교수



이만용 원장



박경준 교수



김형균 대표

표의 경허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 ‘경허의 주석과 삼수갑산’을 게재한 것이 폐간 결정에 원인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만용 한국불교연구위원장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허 스님의 무애행에 대한 논쟁은 이미 있었던 사안이고, 윤창화 대표의 논문은 이러한 지점들을 잘 정리했다. 경허 스님을 절대 천박하게 만

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건설적인 학술 논쟁은 불교학계의 논단을 풍성하게 한다”며 “〈불교평론〉을 폐간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학의 다양한 담론들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정배 교수도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일만 남았다. 한국불교가 더 좋은 미래를 맞이 위해서는 〈불교평론〉과 같은 논단을 폐간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평론〉 발전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김형균 불지사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교평론〉 역시 독자를 확보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교학계와 언론들도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희중 편집위원(서울대 교수)도 페이스북 ‘부루나’를 통해 “폐간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불교평론 발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논문 게재료를 받거나 뜻 있는 이들의 후원금 모금도 시도할만 하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과 의견 발표가 이뤄지는 진정한 학술지로 변신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결사추진본부 자문위, 소위 구성

25일 봉암사에서 4차 회의... 사부대중 의식 개혁 추진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가 조계종단 사부대중 의식개혁을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9월 25일 봉암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종단 사부대중의 의식 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소위원회에는 선·교·율·종무 부문에서 참여하기로 했으며, 원로의원 고우스님(선원)·통도사 해남 스님(교학)·계단위원 성우 스님(율원)·교육원장 현응 스님(종무)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식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석종사 선원장 해국스님은 “의식개혁은 사미계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교·율·종무 누가 법사로 가 법문을 해도 동일한 흐름의 내용을 설할 수 있도록 교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은 “간헐적인 교육이 아닌 기초과정, 전문과정 등 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육바라밀의 보시를 수행하기 위해 양로원 등에서 봉사하는 과정을 넣는 등 수련과정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9월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사부대중 의식 개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거사 사과한 박근혜, 진제 스님 예방

9월 24일 해운정사서... “사과와 아픔 치유하라”

별민자 배석 논란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9월 24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경청했다. 먼저 진제 스님은 “오는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로 박 후보를 맞이했고, 박 후보는 “일선 찾아뵙려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찾아뵙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나”라는 허세를 놓을 때

은 국민이 평등해지고, 평등한 가운데는 나와 남이 없으며 취하고 버림도 없다. 이렇게 용심을 하면 온갖 부정부패도 자연히 자취를 감추어 만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덕담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온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일등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예방은 별민자 서연의 조계종 前 총무원장이 배석해 문제가 됐다. 신종일 기자

관음종, 태허스님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

‘불종대의’ 주제로 교계 학자들 논문 발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2시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묘각사에서 ‘태허조사스님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가 ‘불종대의(佛宗大意) 해제’ △신규택 연세대 교수가 ‘해동전태범 화종법맥소고 해제’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불종대의에 나타난 태허 홍선의 출세분회 사상’ △양승규 박사가

‘불종대의를 중심으로 본 태허조사의 교관론 이해’ △최봉수 교수가 ‘불종대의 제3항 신앙문에 대한 일고찰’ △김경집 건국대 교수가 ‘관음종(불입종) 창종과 그 의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논문은 400 페이지 분량의 논문집 (이것이 참 불교다)로 발간된다. 한편 관음종은 10월 10일에는 다례제와 42수11만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병행한다. 김주일 기자

청나라 고종 건륭황제 대장경 및 사고전서(四庫全書) 봉정대전 초청의 말씀

중국의 펜타곤, 상해진구상품전시무역중심(上海進口上品展示貿易中心) 사장 가이진(柯爾晉) (불명:玄覺)이 스승이신 한국 대각교단 총재 태화당 가산대장로에게 헌정하고 삼보자존과 조선통일운동 민족대표 용성조사와 광주학생독립운동 대표 봉암대선사 각영전에 봉정하는 거룩한 행사에 초청합니다.

((증명단)) □ 도성대장로, 의현대장로, 정각대장로 □ 봉암문도 : 회장 보산, 부회장 남산, 총무 혜산, 보산, 관산, 화산, 현산, 미산, 홍산, 정산, 엄산, 대산대장사

제 1부 : 건륭황제의 건용 대장경 및 사고전서(四庫全書) 봉정대전

사고전서란?

중국 고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 까지 유통되던 모든 기록들을 집대성한 보고(寶庫)로서 청대 건륭(乾隆)황제 38년(1773) 편수에 착수하여 건륭 47년(1782)에 완성하여 도합 15년이 걸린 중국 역사의 모든 것이 수록된 방대한 자료로서 다음과 같다.

- ◇ 경부(經部) : 역(易)·서(書)·시(詩)·예(禮)·춘추(春秋)·효경(孝經)·5경총의(五經總義)·사서(四書)·악(樂)·소학(小學)의 10류로 나누고,
- ◇ 사부(史部) : 정사(正史)·편년(編年)·기사본말(紀事本末)·별사(別史)·잡사(雜史)·조령주의(詔令奏議)·전기(傳記)·사초(史鈔)·재기(載記)·시경(時令)·지리(地理)·직관(職官)·정서(政書)·목록(目錄)·사평(史評)의 15류로 나누었으며,
- ◇ 자부(子部) : 유가(儒家)·병가(兵家)·법가(法家)·농가(農家)·의가(醫家)·천문산법(天文算法)·술수(術數)·예술(藝術)·보록(譜錄)·잡가(雜家)·유서(類書)·소설가(小說家)·석가(釋家)·도가(道家)의 14류로 나누었고,
- ◇ 집부(集部) : 초사(楚辭)·별집(別集)·총류(總類)·시문평(詩文評)·사곡(詞曲)의 5류로 나누어 연인원 3800여명이 동원되어 편찬한 중국 역사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백과 저서이다.

제 2부 : 전법의식

석가여래 부촉법 제77세 조선불교 중흥을 제7조 대각교단 총재 태화당 가산대장로 입실 건당 사법(嗣法)제자 전법(傳法)식.

※ 공양 준비를 위하여 미리 접수 인원을 참고하여야 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2년 10월 9일 오후 1시
- ◆ 장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두타산 원용사
- ◆ 전 화 : 043)532-1875 / FAX 043)537-4849
- ◆ 담당자 : 석마조 휴대폰 010-4877-9058

대회장 해아 봉행위원장 해우 석장은 집행위원장 법해 석마조